

육아정책 Brief

육아정책연구소

2025.7.4

통권 제102호

발행인 | 황옥경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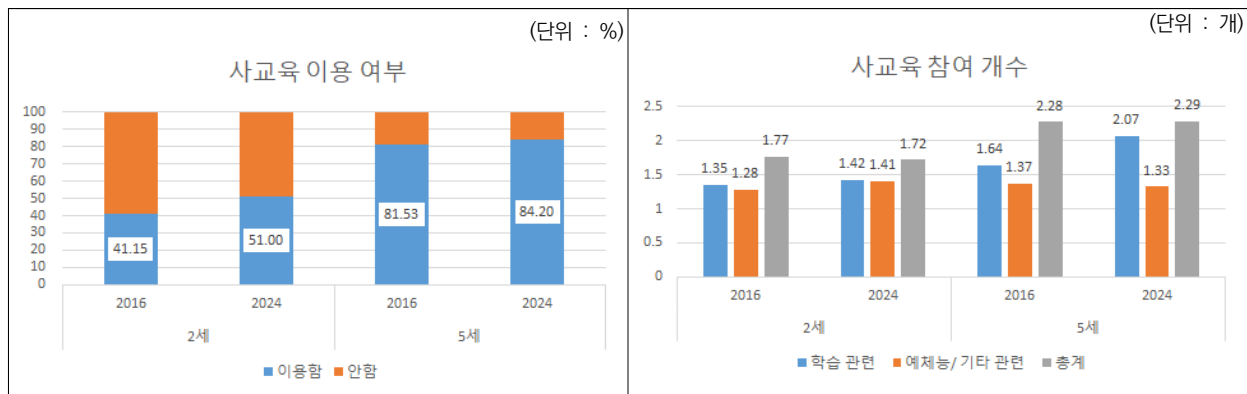
영유아기 사교육, 문제와 해결 방안은?

I 사교육비 증가, 저출생의 원인

사교육¹⁾ 시작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²⁾

- ▶ 사교육 시작 연령이 빨라지고 있음. 2세를 대상으로 한 2016년 조사에서는 0세에 시작했다는 비율이 11.97%였으나, 2024년 조사에서는 32.96%로 대폭 증가하였음.
- ▶ 사교육 참여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6년과 2024년 사교육 참여율은 2세의 경우 41.15%에서 51%로, 5세는 81.53%에서 84.2%로 증가함. 사교육 참여 총 개수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5세의 경우, 학습 관련 사교육 평균 참여 개수가 1.64개에서 2.07개로 증가함.

[그림 1] 사교육 이용 여부, 참여 개수: 2016년 VS. 2024년



자료: 김은영·구자연·김지원·김혜진·김재철·김종근·조숙안·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24).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81의 표를 그래프로 작성함.

- ▶ 사교육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6년과 2024년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의 전체 사교육 총비용은 2세의 경우 127천원에서 137천원으로, 5세는 165천원에서 237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5세 학습 관련 사교육비는 98천원에서 184천원으로, 5세 반일제 이상 학원 비용은 602천원에서 1,686천원으로 대폭 증가함.³⁾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인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김은영·구자연·김지원·김혜진·김재철·김종근·조숙안·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에 기초하되, 다른 문헌들도 함께 참고하여 작성됨. 또한 본고는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은 아님.

1) 본고에서 사교육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 외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하며, 학습 관련 사교육에는 영어, 한글, 수학 등, 예체능 및 기타 관련 사교육은 음악, 미술, 체육 등을 포함함.

2)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연구는 2세 부모 537명, 5세 부모 704명, '김은영 외(2024).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연구는 2세, 3세, 5세 부모 각 500명이 참여하였음.

3) 2016년과 2024년 연구 대상 중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5세 유아는 각 70명, 26명으로 각각의 비용을 일반화하기 어려움.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서는 0~5세의 반일제 학원 월평균 비용이 145.4만원이었음.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 사교육 참여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함에 따라 합계출산율은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출산율 감소의 약 26%가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함.⁴⁾
- ▶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이듬해 합계출산율은 약 0.192~0.262% 감소하였음. 사교육비 증가는 2007~2023년 합계출산율 감소(42.9%)의 약 15.5~23.3%를 설명함.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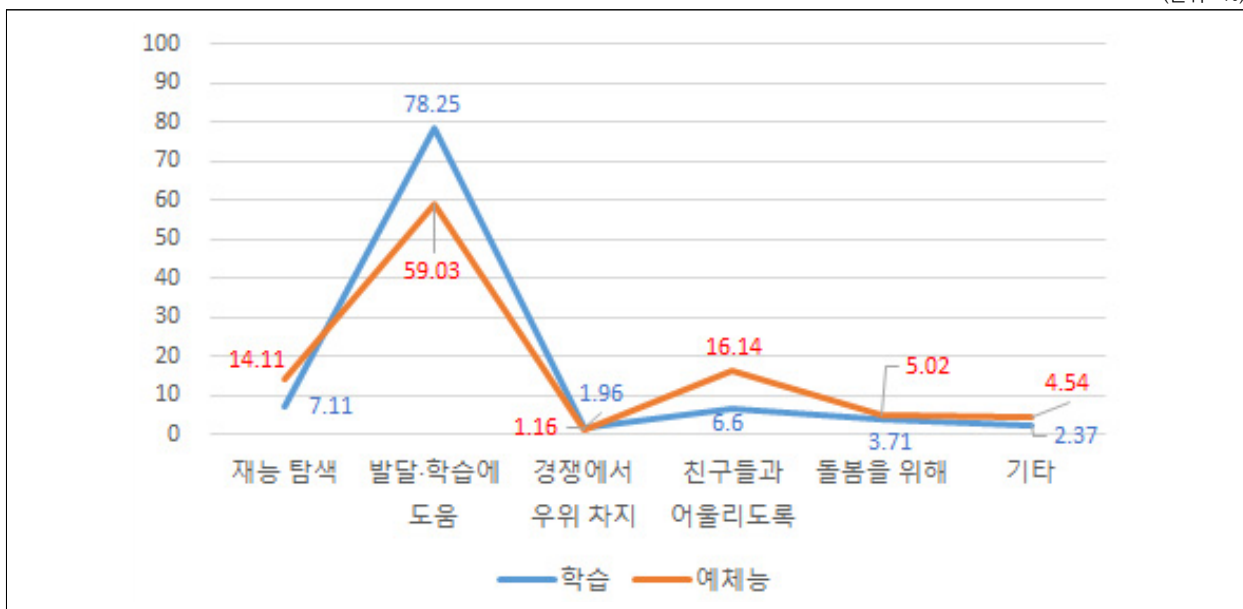
II 영유아기 사교육, 부모의 기대와 다른 결과

부모는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영유아기부터 사교육을 시키고 있음.

- ▶ 사교육의 목적은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2024년 조사에서 학습 관련 사교육의 경우 78.25%,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의 경우 59.03%가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교육을 선택한다고 응답함.

[그림 2] 학습 관련 사교육과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 이용 목적: 2024년

(단위: %)



자료: 김은영·자연·김지원·김혜잔·김재철·김종근·조숙안·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24).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89~91의 표를 재구성하여 그래프로 작성함.

- ▶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기대는 학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자녀를 영어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영어 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상위학교 적응이나 선행학습에 목적이 있었으며, 놀이학원에 보내는 경우 인성이나 사회성에 주로 초점을 두었고, 유아체능단에 보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발달에 관심이 많고, 아이의 특성 상 에너지 발산을 위해 보내기도 함.⁶⁾

4) 유진성(2023).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인협회.

5) 김태훈(2025).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제37회 인구포럼: 저출산의 고착화의 근본적 원인 탐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국가 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6)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연구의 일환으로 반일제 이상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16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에서 면담 내용을 분석함.

부모의 믿음이나 기대와 달리 영유아기 사교육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며, 오히려 사회·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공존함.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경우는 특정 유형의 사교육에 대해 제한적인 영향을 보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문제 행동이나 스트레스 등 사회·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일관되게 보고함.
- ▶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단기적으로 언어능력과 어휘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⁷⁾, 정서·행동 특성(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이해, 사회적 주도성, 공동체意識, 학교폭력피해, 집중력 부진, 불안, 학습, 과민 등)과 상관이 없고, 영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성실성 및 타인이해 능력에,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집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⁸⁾
- ▶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중장기적으로 학업수행능력에 효과를 미치지 않거나 미미하며,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효과가 발견되지 않거나 부정적 효과가 일부 나타남. 집행기능곤란에 대해서도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효과는 존재하지 않음.⁹⁾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가급적 이른 시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영유아기 사교육, 특히 학습 사교육은 투입한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가 거의 없어서 매우 비효율적임.

- ▶ 영유아기 내내 학습할 수 있는 학습의 양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훨씬 짧은 기간에 학습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기 학습 사교육은 가성비 낮음¹⁰⁾.
- ▶ 부모들이 영유아기 사교육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기대하는 학습 성취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고,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임.

III 영유아기 사교육, 아동 권리를 고려할 필요

영유아기 사교육은 영유아가 원해서라기보다는 부모에 의해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 자녀가 좋아해서 사교육을 시킨다는 경우도 있으나, 영유아기 사교육의 선택권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으며, 따라서 부모의 선택에 따라 영유아기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
- ▶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대학과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영유아기부터 사교육을 시키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신 반일제 학원을 선택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영유아의 의사나 특성에 반하는 것일 수 있음.
- ▶ 영유아기부터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내면 아이들은 마음껏 놀이할 수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환경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학원 환경에 적응하거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그 중 일부는 학원에 가기 싫다거나 배가 아프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결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참으면서 속으로만 앓다가 틱 장애 등으로 치료센터를 전전하기도 함.¹¹⁾

7) 집행기능은 행동에 대한 인지 조절이 필요한 일련의 인지 처리과정(cognitive process)으로 선택한 목표의 달성을 이루게 하는 행동들을 선택하고 주의 하는 것으로 향후 성공에 주요한 지표임.

8) 영유아기 사교육의 단기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과 부모 72쌍을 대상으로 아동 직접 검사와 부모 설문을 실시함.

9) 영유아기 사교육의 중장기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만 3, 4, 5세 때 사교육 경험이 만 12세 때 학업수행능력,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함.

10) '이정림 외(2015). 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조기외국어 교육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에서 중국어에 노출되지 않은 만5세, 초등학교 3학년, 대학생들 대상으로 같은 양의 학습을 시킨 후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학습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 초등학교 3학년, 만5세 순으로 나타남.

11)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연구의 일환으로 부모-자녀 124쌍을 대상으로 상담사례를 분석하고 이 중 5사례를 심층 분석함.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지 않는 사교육을 선택하고 영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장시간 학습에 노출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음.

- ▶ 영유아기는 구체적인 사물과의 상호작용, 주변 사람과의 소통, 스스로 선택한 놀이에 몰입함으로써 세상을 알아가는 시기임.
-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국가 수준의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여 영유아들이 자기 주도적인 놀이를 통해 배움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하는 것은 자녀로부터 놀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 영유아기에 초중등학교 같은 책상과 의자로 구성되어 있는 좁은 환경에서 시간 단위로 짜여진 일과에 맞추어 학습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음.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세 고시, 7세 고시는 영유아기에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또 다른 과외를 하는 기이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한 부모들은 우리 아이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영유아기 과도한 사교육은 뇌발달을 저해하는 등 아동의 발달과 건강을 저해할 수 있음.¹²⁾

- ▶ 영유아기는 종합적인 사고력과 집중력,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과도한 사교육은 언어 및 수리 기능을 담당하는 좌뇌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정서와 창의성을 담당하는 우뇌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유아에게 정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 영유아기 동안 발달적으로 적합한 환경에서 성장하면 자극을 쉽게 흡수하여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만성적 스트레스와 같은 유해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교감-부교감 신경계의 조절에 이상이 발생하여 건강상의 문제와 정서적 조절의 문제를 야기함.

IV 영유아기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영유아기 부모와의 충분한 시간 지원

- ▶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및 좋은 관계는 향후 아이들의 학업 성취와 관련이 높으므로,¹³⁾ 아이들을 사교육에 내몰기보다는 부모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감축, 육아시간 등 영유아기 부모의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정책을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기 놀 권리 보장: 사교육은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 ▶ 최소한 오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놀이 중심의 교육·보육과정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의무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법이나 조례를 통해 영유아 대상 학원의 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만들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 사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 중심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일과가 끝난 이후에 영유아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보완재로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선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 ▶ 영유아 대상 학원의 환경과 일과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이 필요함.

12) 박은혜 외(2023). 초기 사교육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 과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함.

13) 정은미(2018). 부모애착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15(1), p. 55-67.

김재희 외(2020). 유아의 학습관련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부모-자녀 애착의 영향: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생애학회지, 10(1), p. 19-38.

공교육의 질 제고

- ▶ 부모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신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낮고 지불한 비용만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프로그램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임.¹⁴⁾
-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부모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부모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지역사회 공공 인프라 구축

- ▶ 영유아기 사교육의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였고, 사회성이나 정서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사교육을 보내지 못하는 부모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음.
- ▶ 영유아의 미래에 필요한 역량인 창의성·자율성·협력 등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창의·체험 기반의 예술과 체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영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집 근처 가까운 거리에서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지역사회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기의 특성과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이해 제고

- ▶ 부모는 주변 사람들이 다 보내니 안 보내면 내 아이만 뒤처진다는 불안감, 비용을 많이 지불했으니 프로그램의 질은 당연히 높을 거라는 기대로 사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은 잘 알고 있지 않음.
- ▶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기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상을 공개하고 이러한 상황이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과 사교육 관련 증거기반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교육과 사회 시스템 개선

- ▶ 교육과 사회 시스템의 개선 없이 부모의 인식과 선택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거시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교육적인 측면에서 모든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고 경쟁시키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길을 열어주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유럽의 대학들처럼 대학 서열을 타파하고,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입학을 열어놓고, 학생들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 졸업시키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함.
- ▶ 사회적인 측면에서 경쟁의 가치보다 상생의 가치를 우선시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keycandy@kicce.re.kr

14)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102호